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을 중심으로

정윤석(고려대학교 정부학 연구소)

1. 서론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민을 주축으로 하는 외국인의 입국 및 거주가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이후 보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차보은, 2018). 이에 정부에서도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근거로 5년 단위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타문화 및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정서가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2:11, 18).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과 국민정체성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시민형, 민족형, 혼합형, 다원형 등과 같은 국민정체성 유형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윤인진, 송영호, 2011). 그러나 국민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다문화 행사 및 활동에 관한 지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더욱이 현재의 다문화 교육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보다는 초·중·고 일반 학생들과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이정금, 2018:564; 교육부 보도자료, 201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다문화 교육 및 행사·활동지원 정책이 국민정체성의 유형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에 관한 정부공개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그 변화추이를 관찰하였다. 또한, 설문조사항목에 포함된 다문화 교육 참여 유무에 관한 질문과 다문화 행사 및 활동에 대한 참여유무에 관한 질문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부가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들이 다문화 수용성의 제고에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 국민정체성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2. 한국의 외국인 현황과 다문화정책

2016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49,441명으로 전체 인구의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유학생, 관광객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이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약 6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와 15만 명의 결혼이주민이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

며 그 밖에 단기관광객(9.3%), 외국인 유학생(3.7%) 등이 외국인 거주자로 분류되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보과, 2016).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2007년까지 부처별·분야별로 개별 정책으로 추진되어 옴에 따라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정책의 일관성 및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근거로 5년 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외국인정책위원회, 2008:8). 이 법에 근거하여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사회교육을 통한 다문화이해 증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라는 세부 목표를 세우고 다문화 관련 포럼·세미나 개최, 외국인주민·지역민·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다문화 행사 및 축제를 지원하고 있다(35-38). 또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문화기반시설 등 이주민 관련단체의 다문화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세계인의 날’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이민자 관련 각종 행사·축제의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되었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2:63-65).

현재 다문화에 관련된 정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외에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정책의 대상 집단이 전체 외국인이라기보다 ‘다문화 가족’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정명주, 2012:89).

3.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

1) 국민정체성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은 한 국가의 국민이 그들의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속감이며 누가 그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는가를 규정하는 자기인식을 의미한다(통계청, 2012, p. 180). 예를 들어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은 한국에 대한 소속감을 공유하면서 같은 한국사람으로서 동질성을 느끼게 만드는 자격조건들에 관한 신념과 감정을 의미한다(윤인진, 송영호, 2011, p.148; 통계청, 2012, 183).

일반적으로 국민정체성은 혈통, 조상,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소속감을 강조하는 종족적 신념(ethnic conception)과 제도적·법적 정체성에 대한 소속감을 강조하는 시민적 신념(civic concept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종족적 측면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부모와 조상이 누구이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강조한다. 한편, 시민적 측면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를 존중하며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는지, 해당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그 나라의 국민임을 느끼고 있는지, 해당 국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등을 강조한다(Heath and Tilley, 2005. pp. 120, 123). 외국인이 종족적 신념에 근거하여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은 시민적 신념에 근거하여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보다 훨씬 어려우며 단기간에 성취되기도 힘들다. 혈통과 조상,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시민적 측면의 요소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자격요건을 갖추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한 사회에 속한 국민들이 ‘국민됨’의 기준에 대해 모두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민정체성의 종족적 요소와 시민적 요소를 상호 배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국민정체성을 분석하고 있다. 즉, 종족적 요소와 시민적 요소를 두 개의 축으로 하여 국민정체성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윤인진 외, 2010. pp. 56-57). 먼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여 종족적 요소와 시민적 요소를 측정 한 후 각 요소에 대해 척도의 중간 값¹⁾보다 높은 값을 보이면 해당 요인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중간 값보다 낮은 값을 보이면 해당 요인에 대해 약한 신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 후 두 요소 모두에 대해 강한 신념을 보이는 응답자를 혼합형(Mixed Type), 두 요소 모두에 대해 약한 신념을 보이는 응답자를 다원형(Plural Type), 상대적으로 시민적 요소를 강조하는 응답자를 시민형(Civic Type), 상대적으로 종족적 요소를 강조하는 응답자를 종족형(Ethnic Type)으로 분류한다 (표 1).

<표1> 국민정체성의 4가지 유형

		시민적 요소(Civic Factor)	
		약함	강함
종족적 요소 (Ethnic Factor)	강함	종족형(Ethnic Type)	혼합형(Mixed Type)
	약함	다원형(Plural Type)	시민형(Civic Type)

2)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은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2:18).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수용성은 이주해온 집단의 기존 집단에 대한 수용성과 기존 집단의 이주해온 집단에 대한 수용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나, 본 연구에서는 후자인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으로 국한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과 같은 이주집단에 대한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왔을 때,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국민들은 이러한 이주집단들을 수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들과 함께 들어온 다양한 문화들과 한국의 전통문화와의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이질적인 이주집

1) 5점 척도를 사용한 경우 척도의 중간 값은 3이며, 4점 척도를 사용한 경우 척도의 중간 값은 2.5이다.

단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가 다문화수용성의 중요 요소이다.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 ‘이주민 증가에 대한 인식,’ ‘다문화지향성 및 자민족 지향성,’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사회적 거리감’ 등과 같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박외병, 정명희, 2012:480-481). 다문화수용성은 2010년대에 들어 일각에서 ‘반다문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동안 추진되어 온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되면서(김혜순, 2017:35-36), 다문화에 대한 연구 및 담론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한편, 다문화 수용성은 위에서 설명한 국민정체성과 상관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eath와 Tilley(2005)는 ‘이주민 수의 증가’와 ‘불법 이주민을 추방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영국인 응답자의 태도와 4가지 유형의 국민정체성과의 상호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혼합형에 속한 응답자가 가장 배타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다른 유형에 비해 혼합형에 속한 영국국민들이 이주민 수의 증가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으며 불법 이주민의 추방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윤인진, 송영호(2011)도 다문화 수용성을 ‘다문화 지향성,’ ‘자민족 지향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지된 위협²⁾’ 등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모든 척도에서 혼합형에 속한 국민들이 다른 형태에 속한 국민들에 비해 자민족 지향성이 높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소극적이었으며, 합법적 체류자라 할지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범죄율이나 실업률 등을 높일 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다원형과 시민형에 속한 국민들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의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2015)’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전국의 만19세에서 74세에 해당하는 남녀 총4,000명을 대상으로 전문면접조사원의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표준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55\%p$ 이다. 전국 4,000명의 표본은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도³⁾에서 표집되었다. 남녀의 비율은 각각 50.2%와 47.8%이며, 연령대는 20대가 19.4%, 30대가 20.6%, 40대가 22.6%, 50대가 20.8%, 60세 이상이 16.5%이다. 설문조사는 2015년 9월10일에서 2015년 11월10일까지 이루어졌다.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지된 위협은 개인적으로 비슷한 조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이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윤인진, 송영호, 2011:157).

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다문화 교육 및 다문화 행사·활동지원과 같은 정책이 국민 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에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설문조사자료에서 확보한 수치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을 혼합형, 시민형, 종족형, 다원형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유형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정도의 차이를 조사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유형에 속한 조사응답자들의 다문화 관련 교육 및 행사·활동 경험의 유무에 따라 해당 유형 내에서 다문화 수용성 정도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015 일반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설문지 내에서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된 설문내용은 총22개 설문문항 중, ‘다문화 관련 교육 및 활동경험(문5, 문6),’ ‘국민정체성(문8),’ ‘다문화지향성 및 단일민족지향성(문20),’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각된 위협인식(문22)’등이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3) 연구방법

연구의 순서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관한 질문들을(문8) 요인분석에 의해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으로 분류한 후 이에 대한 조사응답자들의 리커트척도(Likert Scale) 값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국민정체성에 관한 질문들은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기 때문에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에 대한 질문의 중간 값은 2.5이다. 이를 바탕으로 4가지 유형의 국민정체성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은 표2와 같다.

표2. 국민정체성 분류기준

		시민적 요소(Civic Factor)	
		약함	강함
종족적 요소 (Ethnic Factor)	강함	종족형(Ethnic Type) $C \leq 2.5, E > 2.5$	혼합형(Mixed Type) $C > 2.5, E > 2.5$
	약함	다원형(Plural Type) $C \leq 2.5, E \leq 2.5$	시민형(Civic Type) $C > 2.5, E \leq 2.5$

C: Civic Factor, E: Ethnic Factor

둘째, ‘다문화지향성 및 단일민족지향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각된 위협인식’등과 같은 다문화 수용성 관련 질문에 대한 리커트 척도값의 평균을 계산하여 다문화 수용성과 국민정체성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교육 및 행사·활동 경험의 유무가 4가지 유형의 국민정체성 유형에서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여 종족적 요소와 시민적 요소를 분류하기 위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국민정체성의 유형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그리고 다문화교육 및 행사지원 정책에 의한 각 유형 내 다문화 수용성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평균차이분석(t-Test)을 하였다. 국민정체성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종족적 요소와 시민적 요소별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확인하였다.

5. 분석결과

1) 요인분석

국민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 설문문항은 총11개 문항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 문항들이 시민적 요인과 종족적 요인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요인의 수를 2개로 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1개 문항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측정하기 위해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KMO) 측도를 사용하였으며, 어떤 문항이 어떤 요인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선택하였다. 또한, 해당 변수의 분산이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를 나타내는 공통성(communality) 값을 측정하였다.

KMO 값이 기준치인 .50보다 높게 나타면 해당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공통성 값이 .50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변수는 연구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제거를 고려할 수 있다(이학식, 임지훈, 2012:377, 379). 4차에 걸친 요인분석을 통해 공통성 값이 0.5이하로 나온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문항을 순차적으로 변수에서 제외하였다(표3).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적 요소와 종족적 요소를 두 축으로 하여 국민정체성의 4가지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와 다문화교육 및 행사·활동경험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시민적 요소와 종족적 요소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분석을 위해 더 낫다고 판단하여 공통성 값이 .50이하인 세 변수를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선별된 8개 문항의 KMO 값은 .820으로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값은 .855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⁴⁾. 내적합치도 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통상 0.8에서 0.9사이의 값을 가지면 측정값의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0.6에서 0.7사이면 측정값의 일관성을 수용할 만한 것으로 판단한다(이학식, 임지훈, 2012:377, 121). 주성분분석과 직각회전방식을 통한 성분분석에서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그리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은 종족적 요소(성분1)로 분류되고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 그리고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4)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종족적 요소(성분1)의 내적 합치도 계수값은 .906이고 시민적 요소(성분2)의 값은 .789로 측정값의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여하는 것'은 시민적 요소(성분2)로 분류된다.

표3. 시민적 요소와 종족적 요소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설문문항(국민정체성)	공통성(communality)				성분	
	1차	2차	3차	4차	1	2
1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662	.665	.669	.671	.791	.212
2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	.757	.769	.772	.773	.858	.193
3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833	.854	.861	.861	.914	.161
4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807	.816	.822	.823	.891	.168
5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407					
6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	.474	.446				
7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507	.508	.489			
8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578	.586	.598	.595	.135	.759
9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590	.597	.614	.649	.105	.799
10 한국 국적을 갖는 것	.566	.581	.612	.641	.243	.763
11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551	.556	.560	.579	.186	.738
KMO측도 값	.868	.859	.844	.820	성분별 α 값	
Cronbach's α	.882	.874	.864	.855	.906	.789

2) 국민정체성분류 및 기존연구와의 비교

설문조사 응답자의 종족적 요소와 시민적 요소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국민정체성을 분류하였을 때, 총 4000명의 응답자중 188명(4.7%)이 종족형, 215명(5.4%)이 다원형, 833명(20.8%)이 시민형, 2764명(69.1%)이 혼합형으로 나타났다. 2008년 12월에 전국의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윤인진, 송영호(2012)의 유사연구⁵⁾에서는 88명(7.3%)이 종족형, 47명(3.9%)이 다원형, 115명(9.6%)이 시민형, 950명(79.2%)이 혼합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교하여 보면 혼합형의 비중이 큰 폭으로 줄고 시민형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종족형과 다원형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나 종족형의 비중은 줄고 다원형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국민의 국민정체성이 앞으로 시민형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Heath와 Tilley(2005)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5) 이 연구에서는 종족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출생, 혈통(아버지), 혈통(어머니)에 대한 3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시민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정치제도·법 존중, 소속감, 국적소지, 한국발전에 기여에 대한 4개 문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측정문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4. 국민정체성 유형별 비율의 변화

국민정체성 유형	2015년 조사	2008년 조사
종족형(Ethnic Type)	188명(4.7%)	88명(7.3%)
다원형(Plural Type)	215명(5.4%)	47명(3.9%)
시민형(Civic Type)	833명(20.8%)	115명(9.6%)
혼합형(Mixed Type)	2764명(69.1%)	950명(79.2%)
총계	4000명	1200명

3) 국민정체성 유형별 기술통계량 및 차이분석

국민정체성의 유형에 대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월가구총소득’의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산의 동질성 검정에서 네 가지 유형의 모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등분산이 아닌 경우에 네 가지 유형의 평균이 동일한지 알아보기 위해 Welch 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네 가지 변수 중, 성별을 제외한 세 가지 변수에서 유의수준 0.001에서 유형별 모평균이 모두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 교육수준, 월가구총소득 변수에서 적어도 두 개 유형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표5).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혼합형에 속한 응답자들은 다른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에 비해 연령이 가장 높았고 교육수준과 월가구총소득이 가장 낮았다. 또한 다원형과 시민형에 속한 응답자들이 종족형과 혼합형에 속한 응답자들에 비해 연령이 낮았으며 교육수준과 월가구총소득이 높았다.

표5. 국민정체성 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국민정체성 유형	연령	성별	교육수준**	월가구총소득 (단위: 만원)
종족형(Ethnic Type)	43.59	1.47	4.56	466.5
다원형(Plural Type)	40.04	1.53	4.73	486.3
시민형(Civic Type)	40.63	1.47	4.91	502.8
혼합형(Mixed Type)	45.94	1.51	4.45	455.7
평균	44.40	1.50	4.57	467.7
평균의 동질성 검정*	.000	.157	.000	.000

*: 평균의 동질성 검정은 Welch 기법을 사용하였다. 표에 나오는 값은 유의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 : 1-안받음,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4년제미만 대학, 6-4년제이상 대학교, 7-대학원이상

4) 다문화 수용성 문항에 대한 국민정체성 유형별 평균 및 차이분석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에 대한 국민정체성 유형별 평균은 표6과 같다. 평균차이분석을 위해 등분산이 가정된 경우에는 Levene기법을 등분산이 가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Welch기법을 사용하여 유형별 평균차이를 검증하였으며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10개 문항 모두에서 적어도 두 개 유형간의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등분산이 가정된 경우에는 Scheffé기법을 등분산이 가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Games-Howell기법을 사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참조).

다문화지향성과 관련하여, ①번 문항에서는 시민형이 다른 유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른 유형들은 비슷하게 답하였다. ②번 문항에서도 시민형이 다른 유형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혼합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③번 문항에서는 혼합형과 시민형에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었다. 다문화지향성에 대해 ①문항을 제외하고는 시민형과 종족형의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민족지향성과 관련하여, ①번과 ②번 문항에서 혼합형이 다른 유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점수를 보였고 ②번 문항에서는 다원형과 시민형의 평균 차이도 유의미하였다. ③번 문항에서도 혼합형의 평균이 다원형과 시민형의 평균보다 높았으며 다원형과 시민형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민족지향성과 관련하여 시민형과 종족형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인지된 위협과 관련하여 ①번 문항에서는 시민형과 다원형이 종족형과 혼합형과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②번 문항에서는 혼합형이 다른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었다. 외국인의 범죄율과 관련된 ③번 문항에서 혼합형은 다른 유형보다 높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으며 시민형의 경우에도 다원형과 통계적으로 구분될 정도로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 문항에서 다원형은 다른 유형보다 가장 낮은 우려를 보였다. ④번 문항에서는 혼합형이 외국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해 국가의 재정부담증가를 가장 우려하고 있었고 다원형은 가장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인지된 위협에 대해서 종족형과 시민형의 차이는 ①문항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가장 배타적인 국민정체성 유형은 혼합형이었다. 이에 반해, 시민형은 높은 다문화지향성을 나타냈으며 다원형은 낮은 자민족지향성과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다원형과 시민형의 다문화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종족형과 혼합형의 다문화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나 문항에 따라서는 다원형과 시민형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시민형과 종족형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표6. 국민정체성 유형별 다문화지향성, 자민족지향성, 인지된 위협에 대한 평균차이 분석

다문화 수용성 문항		국민정체성유형			
		다원형	종족형	시민형	혼합형
다 문 화 지 향 성	①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b*}	3.15	3.16	3.35	3.15
	②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a*}	3.29	3.36	3.43	3.22
	③ 외국 이주민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 ^{b**}	3.15	3.05	3.19	3.07
자 민 족 지 향 성	① 여러민족은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b*}	2.82	2.93	2.90	3.21
	② 한국이 오랫동안 단일민족 혈통을 유지해온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a*}	3.13	3.28	3.34	3.62
	③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a*}	2.88	3.23	3.07	3.39
인 지 된 위 협	①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그들이 한국인의 일 자리를 빼앗아 간다. ^{b*}	2.60	2.97	2.70	3.09
	②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b*}	2.68	2.90	2.74	3.19
	③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a*}	2.90	3.21	3.16	3.46
	④ 우리나라에 외국이주민과 외국인이 증가하면 그들을 지원해야 하기때문에 국가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다. ^{a*}	2.99	3.28	3.19	3.48

a: 등분산이 가정됨(Levene검증 후, Scheffé기법으로 사후검증), b:등분산이 가정되지 못함(Welch검증 후, Games-Howell기법으로 사후검증). *: 유의수준 0.001수준에서 유형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함. **: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유형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함.

5) 다문화교육 및 행사참여 유무에 따른 유형별 다문화 수용성 평균차이 분석

국가의 다문화지원 정책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교육과 다문화행사 및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한 지원이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각 국민정체성 유형별로 다문화 교육 및 행사·활동 등에 참여한 응답자와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의 다문화 수용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원형과 종족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지만, 다문화 교육이나 행사·활동 등에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그렇지 못한 응답자의 경우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문화지향성이 높고 자민적 지향성과 외국인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7). 예외적인 경우로⁶⁾ 다원형의 경우 자민족지향성 ③번 문항에서, 종족형의 경우 인지된 위협 ③번 문항이 있었다. 즉, 교육이나 행사·활동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다원형에서는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실이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자민족 지향성 ③번 문항에 더 동의하고 있었고, 종족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라는 인지된 위협 ③번 문항에 더 동의하고 있었다.

6) 다문화지향성 ①번 문항의 경우, 다원형에서는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평균이 같았고 종족형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평균이 오히려 0.02만큼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나 산술적으로도 큰 의미는 없었다.

종족형과 다원형의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시민형과 혼합형의 경우에 자민족지향성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교육이나 행사·활동에 참여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다문화지향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외국인의 한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위협가능성을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자민족지향성의 경우에는 ②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자민족 지향성이 낮았다.

결과적으로 다문화 교육 및 행사·활동에 대한 참여경험은 다문화지향성을 높이고 외국인이나 외국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 경향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자민족지향성의 완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교육 및 행사·활동의 목적이 외국인에 대한 이해 및 상호관계 개선에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참여자의 다문화 지향성을 높이고 인지된 위협을 낮추는데 영향을 주고 자민족지향성의 완화는 그러한 영향에 의한 간접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육 및 행사·활동에 대한 참여는 시민형과 혼합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다문화지향성 제고와 인지된 위협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조사대상자 4000명 중 421명(10.5%)만이 다문화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표7. 다문화 교육 및 활동·행사 참여경험이 국민정체성 유형별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 다문화 교육 및 행사참여율, 조사대상자수

문항	유형	다원형(12.1%)					종족형(10.6%)				
		전체 평균 (215)	미 참여 (189)	참여 (26)	등분 산	유의 수준	전체 평균 (188)	미 참여 (168)	참여 (20)	등분 산	유의 수준
다문화 지향성	①	3.15	3.15	3.15	O	.998	3.16	3.17	3.15	X	.893
	②	3.29	3.26	3.46	O	.306	3.36	3.34	3.50	O	.396
	③	3.15	3.14	3.23	O	.590	3.05	3.04	3.20	O	.442
자민족 지향성	①	2.82	2.86	2.58	O	.111	2.93	2.96	2.70	O	.205
	②	3.13	3.16	2.96	O	.304	3.28	3.29	3.20	O	.700
	③	2.88	2.86	3.04	O	.329	3.23	3.25	3.05	O	.332
인지된 위협	①	2.60	2.63	2.31	O	.106	2.97	3.00	2.70	O	.151
	②	2.68	2.72	2.38	O	.068 ^a	2.90	2.91	2.80	O	.562
	③	2.90	2.95	2.58	X	.112	3.21	3.19	3.35	O	.460
	④	2.99	3.02	2.77	O	.182	3.28	3.32	3.00	O	.107

문항 \ 유형		시민형(14.9%)					혼합형(9.08%)				
		전체 평균 (833)	미 참여 (709)	참여 (124)	등분 산	유의 수준	전체 평균 (2764)	미 참여 (2513)	참여 (251)	등분 산	유의 수준
다문화 지향성	①	3.35	3.31	3.57	O	.001*	3.15	3.12	3.41	O	.000**
	②	3.43	3.39	3.65	O	.001*	3.22	3.20	3.48	O	.000**
	③	3.19	3.13	3.48	O	.000**	3.07	3.06	3.22	X	.013*
자민족 지향성	①	2.90	2.91	2.89	O	.830	3.21	3.22	3.11	O	.068
	②	3.34	3.33	3.39	O	.547	3.62	3.61	3.71	O	.088
	③	3.07	3.09	3.00	O	.320	3.39	3.39	3.35	O	.464
인지된 위협	①	2.70	2.75	2.45	O	.001*	3.09	3.11	2.92	O	.002*
	②	2.74	2.79	2.44	O	.000**	3.19	3.20	3.06	O	.019*
	③	3.16	3.21	2.85	O	.000**	3.46	3.48	3.20	O	.000**
	④	3.19	3.22	3.05	O	.051 ^a	3.48	3.50	3.37	X	.039*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미함,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유의미함. a:유의수준 0.1수준에서 유의미 함.

6.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는 국민정체성의 유형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거나 국민정체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외국인 접촉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하는데 국한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서 다문화 교육 및 행사·활동에 대한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의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나이, 교육수준, 외국인 접촉 등 정부가 그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해 다문화 수용성이 개선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 보다는 다문화정책을 통해 보다 빠르게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국민정체성 유형 중 대다수(89.9%)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형과 종족형에서 다문화 교육 및 행사·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특히, 다문화현상에 대해 가장 배타적이라고 밝혀진 종족형에서 이러한 개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점은 나이와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적 특징으로 인해 종족형에서 시민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개선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교육 및 행사·활동에 대한 경험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10.5%에 미치고 있으며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족형에 속한 응답자의 약 9%만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지방자치행정을 통해 더욱 광범위하고 적실하게 실행해 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앞으로 정부가 참여하는 다양한 다문화 정책에 참여하는 국민이 더욱 높아질수록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더욱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다문화 교육이나 행사·활동이 국민정체성의 각 유형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

하여 다문화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권한위임이 필요하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상호협력과 창의적인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 김혜순. 2017. 국내외 정책환경을 감안한 다문화가족정책 조정방안: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고와 주류화. 입법과 정책. 9(1):31-55.
- 박외병, 정명희. 2012. 다문화 정책정향성과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12. 6):475-496.
- 윤인진 외. 2010.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경기도: 한국학술정보(주).
- 윤인진, 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143-192.
- 이정금. 2018. 미래사회 한국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교육문화연구. 24(1):549-567.
- 이학식, 임지훈. 2012. SPSS 18.0 매뉴얼. 서울: 도서출판 집현재.
- 정명주. 2012.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단문화 정책 실태 분석-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1:87-135.
- 차보은. 2018. 다문화 '국가'의 '시민'교육에 대한 고찰-일한 초등학교교사들의 실천과 내러티브.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2018.2):118-123
- Anthony F. Heath and James R. Tilley. (2005). British National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Vol.7(No.2):119-132.
- 교육부 보도자료. 2017.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발표: 다문화시대 인재양성을 위해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및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2017.1.13.).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팀.
- 법무부 이민정보과. 2016.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연구수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과). 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연구수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2.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학회.

<부록>

다중 비교					
종속 변수	사후분석기법	국민정체성 ^a	유형	평균차	유의확률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Games-Howell	.00	1.00	-.011	.999
			2.00	-.193*	.019
			3.00	.003	1.000
		1.00	.00	.011	.999
			2.00	-.182*	.012
			3.00	.014	.994
		2.00	.00	.193*	.019
			1.00	.182*	.012
			3.00	.196*	.000
		3.00	.00	-.003	1.000
			1.00	-.014	.994
			2.00	-.196*	.000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Scheffe	.00	1.00	-.068	.891
			2.00	-.145	.184
			3.00	.064	.776
		1.00	.00	.068	.891
			2.00	-.077	.747
			3.00	.132	.247
		2.00	.00	.145	.184
			1.00	.077	.747
			3.00	.209*	.000
		3.00	.00	-.064	.776
			1.00	-.132	.247
			2.00	-.209*	.000
외국 이주민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 진다	Games-Howell	.00	1.00	.096	.685
			2.00	-.037	.938
			3.00	.075	.578
		1.00	.00	-.096	.685
			2.00	-.133	.262
			3.00	-.021	.990
		2.00	.00	.037	.938
			1.00	.133	.262
			3.00	.112*	.009
		3.00	.00	-.075	.578
			1.00	.021	.990
			2.00	-.112*	.009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Games-Howell	.00	1.00	-.108	.585
			2.00	-.080	.612
			3.00	-.387*	.000
		1.00	.00	.108	.585
			2.00	.028	.978
			3.00	-.279*	.000
		2.00	.00	.080	.612
			1.00	-.028	.978
			3.00	-.307*	.000
		3.00	.00	.387*	.000
			1.00	.279*	.000
			2.00	.307*	.000
한국이 오랫동안 단일민족 혈통을 유지해 온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Scheffe	.00	1.00	-.142	.464
			2.00	-.207*	.025
			3.00	-.488*	.000
		1.00	.00	.142	.464
			2.00	-.066	.840
			3.00	-.346*	.000
		2.00	.00	.207*	.025
			1.00	.066	.840
			3.00	-.281*	.000
		3.00	.00	.488*	.000
			1.00	.346*	.000
			2.00	.281*	.000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Scheffe	.00	1.00	-.345*	.001
			2.00	-.191*	.040
			3.00	-.504*	.000
		1.00	.00	.345*	.001
			2.00	.154	.181
			3.00	-.159	.113
		2.00	.00	.191*	.040
			1.00	-.154	.181
			3.00	-.314*	.000
		3.00	.00	.504*	.000
			1.00	.159	.113
			2.00	.314*	.000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면 그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Games-How ell	.00	1.00	-.373*	.000
			2.00	-.109	.443
			3.00	-.498*	.000
		1.00	.00	.373*	.000
			2.00	.263*	.002
			3.00	-.125	.242
		2.00	.00	.109	.443
			1.00	-.263*	.002
			3.00	-.389*	.000
		3.00	.00	.498*	.000
			1.00	.125	.242
			2.00	.389*	.000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Games-How ell	.00	1.00	-.215	.055
			2.00	-.053	.861
			3.00	-.508*	.000
		1.00	.00	.215	.055
			2.00	.162	.070
			3.00	-.292*	.000
		2.00	.00	.053	.861
			1.00	-.162	.070
			3.00	-.454*	.000
		3.00	.00	.508*	.000
			1.00	.292*	.000
			2.00	.454*	.000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Scheffe	.00	1.00	-.305*	.010
			2.00	-.256*	.003
			3.00	-.554*	.000
		1.00	.00	.305*	.010
			2.00	.049	.930
			3.00	-.248*	.004
		2.00	.00	.256*	.003
			1.00	-.049	.930
			3.00	-.297*	.000
		3.00	.00	.554*	.000
			1.00	.248*	.004
			2.00	.297*	.000
우리나라에 외국이주민과 외국인 증가하면 그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다	Scheffe	.00	1.00	-.291*	.008
			2.00	-.203*	.021
			3.00	-.494*	.000
		1.00	.00	.291*	.008
			2.00	.089	.641
			3.00	-.203*	.018
		2.00	.00	.203*	.021
			1.00	-.089	.641
			3.00	-.292*	.000
		3.00	.00	.494*	.000
			1.00	.203*	.018
			2.00	.292*	.000

*. 평균차는 0.05 수준에서 유의함. a. 0:다원형, 1:종족형, 2:시민형, 3:혼합형